

전북대, 최대 규모 문학상 공모

전북대신문방송사-혼불기념사업회-최명희문학관 공동 주관 오는 31일 까지 작품 접수

전북대가 국내 최대 규모의 문학 공모전인 '가람 이병기 청년문학상'과 '최명희 청년소설 문학상' (이하 문학상)을 공모한다.

총 상금 650만 원 규모로 전북대신문방송사와 혼불기념사업회·최명희문학관(대표 장성수)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오는 31일까지 작품을 접수한다.

공모 분야는 대학생과 고등학생 부문 각각 시와 단편소설이며 시는 시조 포함 세련 이상 소설은 한편 이상 제출해야 한다.

당선자에게는 상금이 주어지며 당선 작품은 전북대신문 개교기념 특집호(10월 12일 예정)에 발표된다.

공모 작품은 전북대신문방송사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전북대는 한국 문학사에 기념비적인 공로를 세운 '난초사인' 가람 이병기 선생과 '혼불'의 최명희 작가를 추모하고 문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01년부터 문학상을 운영하고 있다.

문학상의 모태는 1955년부터 운영돼 오던 전북대신문 학생작품 현상모집이며 최명희 작가 역시 현상모집에서

지난 1971년 '정옥이'라는 작품으로 당선된 영예를 안은 바 있다.

전북대학교 관계자는 "올해로 16회째 맞는 문학상은 김경주와 백상웅, 손흥규, 이혜미, 전아리, 조율 등 급진한 신예를 발굴하며 명실상부한 문학인 등용문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일일명예시장 위촉 전주시 일일명예시장 위촉식이 24일 전주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이 제2회 전주 시민원특회의 BEST 시민참여상 수상자인 김향숙씨에게 일일명예시장 위촉패를 전달하고 있다.

삼천동·인후동 등 지역공동체 주관 마을장터 열린다

삼천 야한 플라마켓 등

지역공동체가 주관하는 마을장터가 삼천동과 인후동, 금암동 등에서 열린다.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웃과 소통하고 정을 나눌수 있는 주민주도의 마을장터가 전주 일원에서 풍성하게 열린다.

먼저 삼천동 막걸리골목 공영주차장 주변에서는 매월 첫째·셋째 주 저녁 '삼천사람 삼천시민예술가모임'과 '삼천야한 플라마켓'을 열린다.

삼천 야한 플라마켓은 지역 공예작가들의 수공예품을 보고 즐기며 체험할

수 있는 문화장터다.

특히 공예작가 10여명이 참여해 보는 재미와 사는 재미, 파는 재미, 만드는 재미가 있는 아기자기한 핸드메이드 작품들을 선보여 삼천동 막걸리 골목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하게 된다.

또한 삼천동 거미공원에서 '삼천동 마을만들기 주민협의회'가 운영하는 마을장터가 오는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열린다.

삼천동 마을장터는 지역 농산물, 생활수공예품, 계절음식과 반찬 재활용품 등을 판매하고 장터에 참여하는 모든 주민들을 위한 경품 추첨행사도 진행 된다.

이와 함께 인후동 이종도서관 옆 구 충목공원에서는 '착한 사람들' 공동체가 운영하는 착한 플라마켓이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열린다.

착한 플라마켓에서는 지역 농산물 등이 판매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보물찾기와 경품추첨 행사 등 다채로운 공연도 제공된다.

금암동 국민은행 앞에서는 행복한 동행 공동체가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중고 나눔 장터를 운영하고 '전주(전포)럽' 공동체는 오는 25일~28일 이틀간 인후동 주민센터 맞은편에서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 행사를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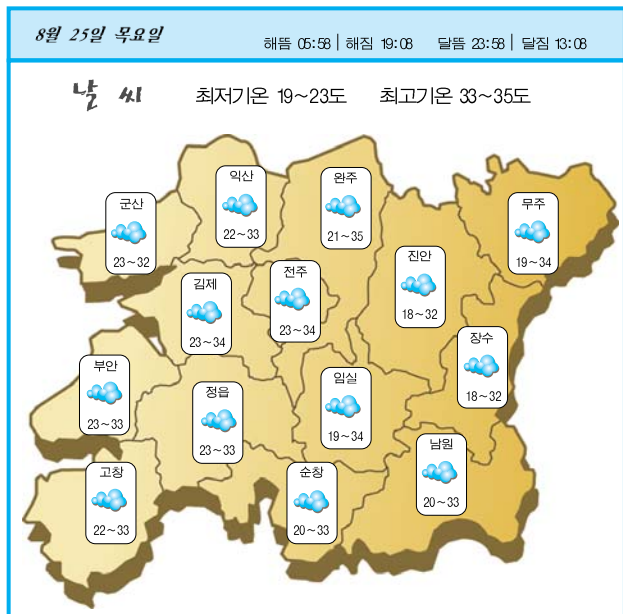
이밖길 나눔 장터(가볼) 공동체는

오는 9월 6일 이밖길공원에서 추석맞이 바자회 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이들 공동체는 따뜻한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하기 위해 마을장터의 수익금 일부를 지역복지센터와 불우이웃 등에 기부할 예정이다.

전주시 사회경제적지원단 관계자는 "전주지역 곳곳에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하는 마을장터로 어깨 쓰고 나눠 쓰는 생활문화의 정착과 직거래 장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동네 장터의 활성화를 위한 전주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원광대 전기응용연구센터, 학생 해외 기술연수

취업연계 LED 과정

원광대학교는 전기응용기술연구센터가 전북도 지원 취업연계 LED 과정 학생들의 해외 기술연수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일본 오사카 도시바 라이팅 CO-LAB에서 LED와 조명기술에 대한 교육과 실습 과정으로 진행됐다.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연수에서는 도시바 라이팅이 제안하고 있는 LEDSMART 기술을 중심으로 조명기술의 역할과 새로운 가능성 등이 소개됐다.

또 연수 담당 강사인 아사쿠마 부장의 조명 광원 변천사와 조명 공간 연출에 대한 강연 등이 이뤄졌다.

아사쿠마 부장은 강연을 통해 가정의 광원이 점차 LED로 변화함에 따

라 전기절약 및 광원 색을 활용한 품격 있는 조명 공간에 대해 설명했다.

더불어 병원 LED 조명, 옥외용 LED 조명이 단순히 밝히는 빛이 아닌 분위기를 연출해 감동을 주는 조명으로 변화됨으로써 이를 위한 ICT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CO-LAB의 실내 공간 시뮬레이션 실험은 건축 공간 환경의 요구에 따라서 LED 광원의 광색과 광량 등을 결정하고 조명을 설계하는 실험이 진행됐다.

한편 지난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기술연수는 매년 방학을 이용해 1회씩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원광대 전기응용기술연구센터는 지난 4년 동안 원광대 학생들의 기술 연수 진행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고민형기자

도교육청, 교육전문직원 발령자 임명장 수여

교장 전직 10명 등 145명

전북도교육청은 24일 본청 대강당에서 9월1일자 교장·원장·교감·원감 및 교육전문직원 발령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전북학생교육원장과 전주교육장, 무주교육장, 본청 학교교육과장, 미래인재과장을 비롯하여 교장 전직 10명, 교감 승진 37

명, 공모교장 11명, 장학관 승진 7명, 장학관·교육연구관 전직 9명, 교감 전직 3명, 교감승진 49명, 장학사 신규 임용 14명 등 총 145명이 참여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민형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